

서울 중구 인쇄타운 지각변동 예고

서울시, 중구를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로 육성 발표

서울시는 시내에 산재한 준공업산업지역 등을 새로운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지난해 4월 밝힌 바 있다.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란 주거정책인 뉴타운의 개념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전략에 도입해 지역별로 산업 환경을 정비하고 이들 지역을 서울의 핵심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같은 방침에 의거 중구를 금융산업단지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수백년 이어져 온 인쇄타운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 이에 따라 인쇄단체와 뜻 있는 인쇄인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가 중구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쇄산업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화산업인 인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사업에서 인쇄산업을 아예 제외하고 금융산업을 지정한 것은 인쇄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에서도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김정전)를 발족하고 1만 인쇄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2월 26일 조정석 이사장과 김정전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조합 임직원들은 중구 쌍림동부터 인쇄사가 밀집해있는 방산시장을 비롯하여 필동, 을지로, 충무로 등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서명운동을 펼쳤다.

인쇄마을지정 반대위,

서울시와 중구청에 서명부 접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전)는 지난 3월 5일 탄원서를 서울시와 중구청에 접수했다.



인쇄의 메카 서울 중구. 현재 중구에는 인쇄업체가 대략 5000여 사에 이르며 종이, 배달, 코팅 등 연관 업체의 종사자까지 합칠 경우 10여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구가 한국 인쇄업의 메카임을 웅변하는 지표다. 그러나 서울시 중구 인쇄타운은 서울시의 재개발계획 때문에 수백년 이어온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이를 지키고자하는 인쇄인들의 노력 끝에 결국 지난 5월 26일 서울시가 중구 을지로와 주교동 일대를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예고함으로써 인쇄타운의 명맥을 잇는 한편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중구 인쇄타운을 지키면서 인쇄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온 인쇄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쇄마을 지정과 관련해 조정석 이사장은 “탄원서를 통해 중구의 유일한 제조업인 인쇄 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인쇄의 메카이자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며 “중구가 활성화되고 제 역할을 해야 서울 전체의 인쇄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인쇄마을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전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쇄인 모두가 단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쇄마을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쇄의 위상 역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위원회의 탄원서 접수는 중구의 필동 지역에 인쇄공장 건축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 지역의 인쇄산업 인프라가 와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도 일부 포함됐다.

서울시 제2차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중구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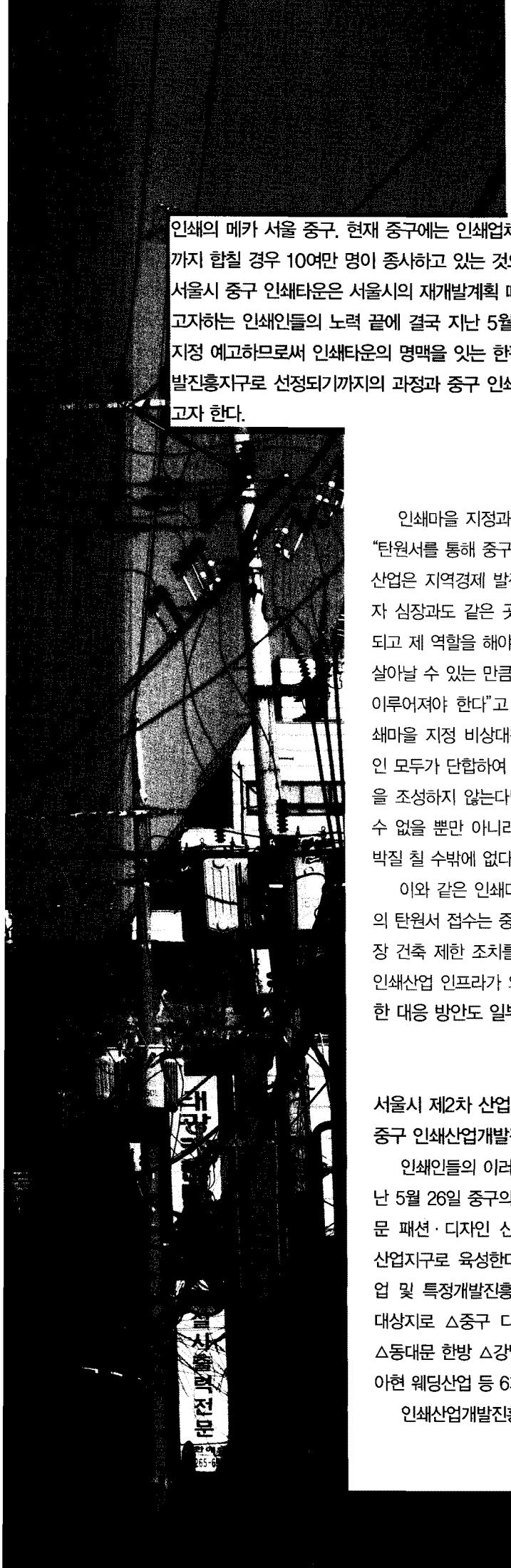
인쇄인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는 지난 5월 26일 중구의 을지로 인쇄타운과 동대문 패션·디자인 산업을 미래형 신성장동력 산업지구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구 산업뉴타운) 2차 대상지로 △중구 디자인·패션 △중구 인쇄 △동대문 한방 △강남 디자인 △종량 패션 △이현 웨딩산업 등 6개소를 선정했다.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인 주교동, 을지로5

가, 오장동 일대는 대표적인 도심형 산업인 인쇄업의 67%가 밀집된 곳으로 첨단인쇄문화정보센터, 연관 산업 공동물류보관시설, 인쇄문화체험관, 산학연센터 등 다양한 인쇄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도심재개발, 재정비사업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첨단 인쇄산업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등 법규정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지구 내 권장업종 용도의 부동산은 시세 및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경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건설사업자 및 권장업종 영위 중소기업에게는 건축비와 입주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용자 혜택도 주어지며 서울시가 시비를 직접 투입해 해당지구 내 앵커시설(종합지원센터) 건립, 도로와 같은 산업기반(SOC) 확충, 공동이용 장비·시설 지원, 마케팅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한다.

인쇄산업은 도심형산업으로서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산업으로 그 의미는 남다르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쇄의 메카인 중구지역, 필동 인현동 쌍림동 충무로 일대를 중심으로 인쇄와 매우 밀접한 산업인 지업사, 제책업계, 기획사, 운송업체 등 다채로운 분야의 복합 산업이 함께 공조하며 중구지역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에 인쇄인들은 이번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중구를 더욱더 사랑하고 인쇄 산업 발전을 위해 자긍심을 가지고 협력하며 공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야 하겠다.



명성금박

강태원 대표

누가 뭐라 해도 한우물만 팅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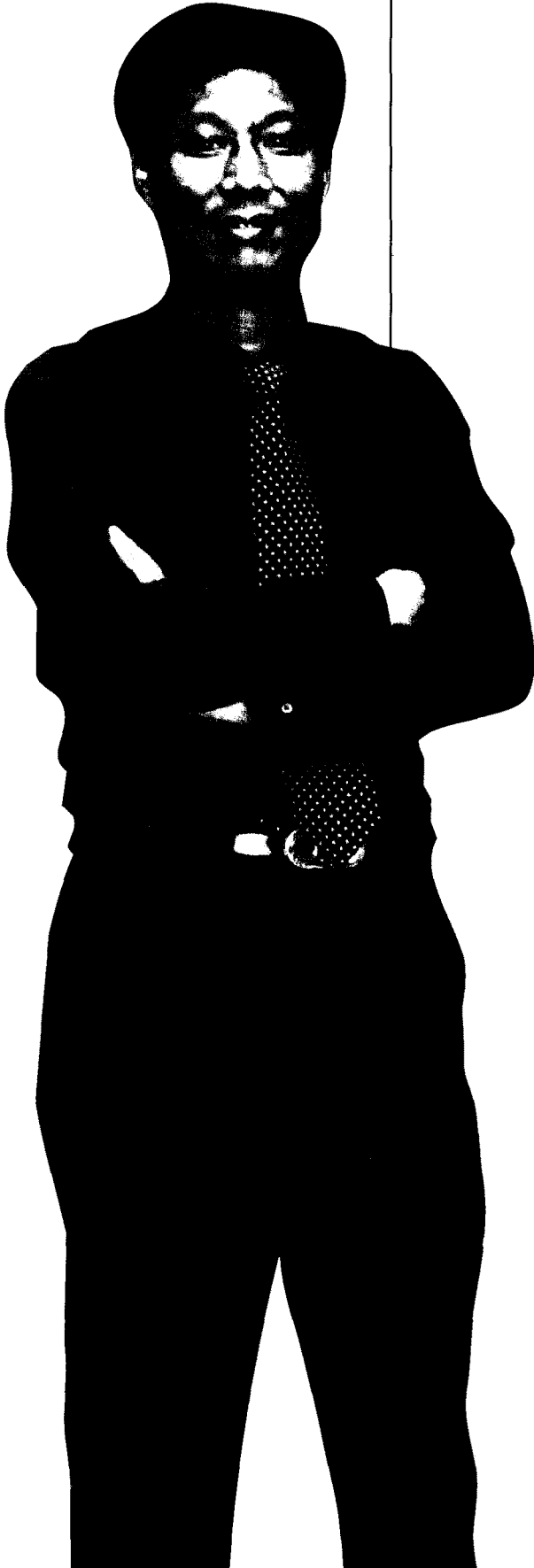
일반 오프셋인쇄에 약간의 효과를 더 주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기법 중의 하나로 금박인쇄가 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색이나 은색으로 인쇄된 제품들은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나타내 줌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 특히 패키지 분야에서는 내용물을 접하기 전에 패키지를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박인쇄 제품은 소비자의 눈을 먼저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 패키지나 라벨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언제 금박인쇄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1985년 동대문상고를 졸업하자마자 인쇄업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자긍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돈이 있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지만 오히려 자부심까지 느낍니다. 전문가로서 경영자로서 만족하고 있으며 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금박인쇄는 사람에 비유하자면 화장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 제품을 고급스럽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금박인쇄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박인쇄 단가를 오프셋인쇄업체들이 잘 모





르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단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금
박인쇄업체들 간의 정보교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 간
의 유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인쇄품질을 지속
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변화하는 시장의 환경에 유연하게 대
처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획기적인 설비
증설 계획은 없지만 요즘 수출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
다. 또한 앞으로 생산성 보다 고품질로 승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쇄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쇄업계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두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가격경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쇄 업종만큼
가격경쟁이 심해 마진이 낮은 업종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머리
를 맞대고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체들이 앞장서야 하겠지요. 이대로 간다면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희성금박
조민욱 대표

명함인쇄를
천직으로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가벼운 인사와 함께 명함을 주고받는다. 그때 명함이 좀 남다르다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정 지위에 있거나, 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명함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명함이 자신이 누군지 알려 줄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명함인쇄는 언제 시작하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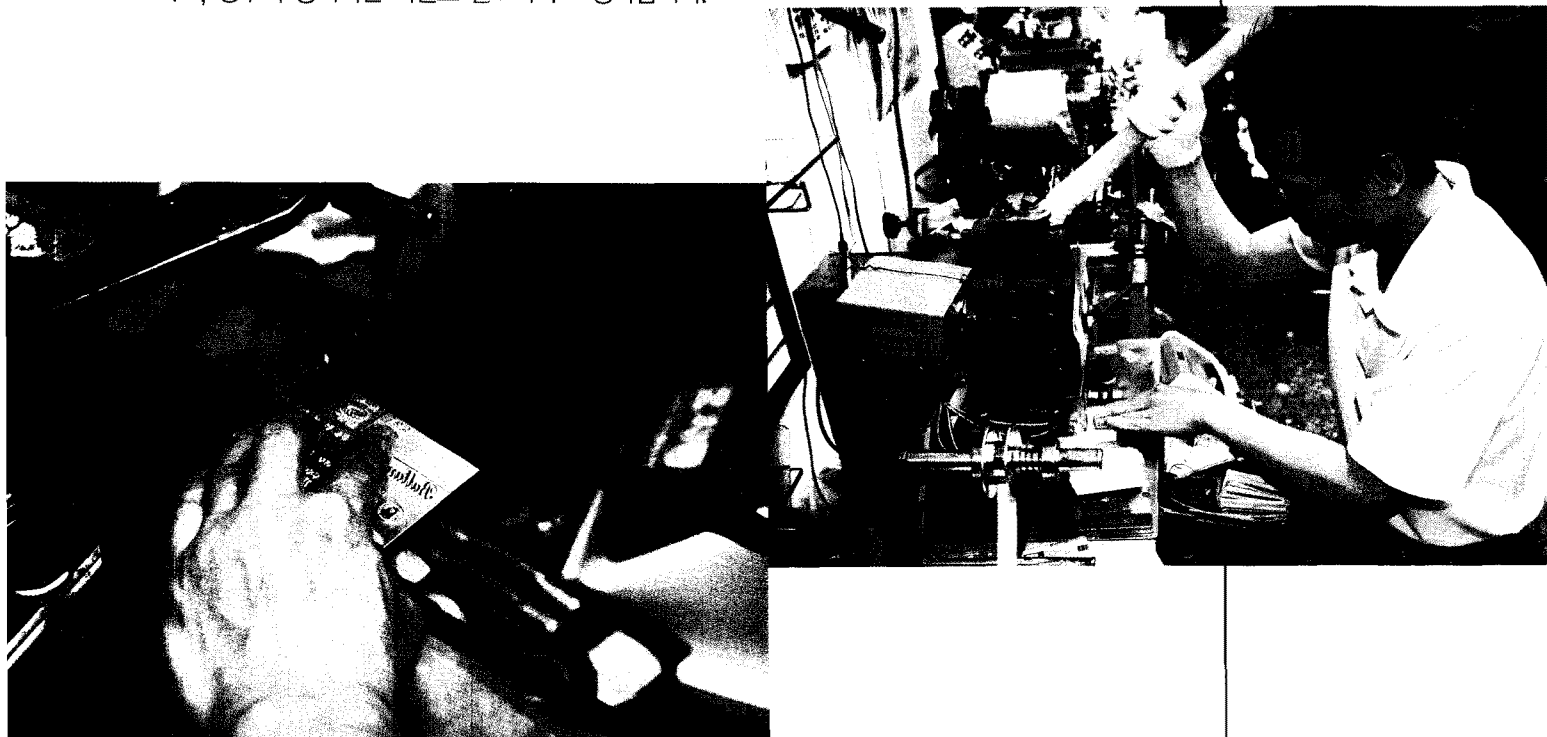
6남매 중 넷째로 고교 졸업 후 고모부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명함 인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명함을 서비스품목 정도로 생각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총무로와 을지로에서 수동으로 제판하던 시절에 우리는 악조건 하에서도 명함사업으로 길을 텃고 지금도 변함없이 수직업무를 병행해오고 있습니다.

명함인쇄업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도 지금 명함업계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그 선 안에서 나름대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했다면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장에 편하고 좋은 것을 찾다보니까 가격경쟁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규모 인쇄업체들이 나서서 가격을 파괴하고 있는데, 중소 명함제작업체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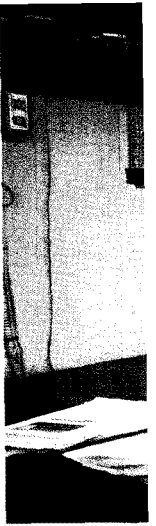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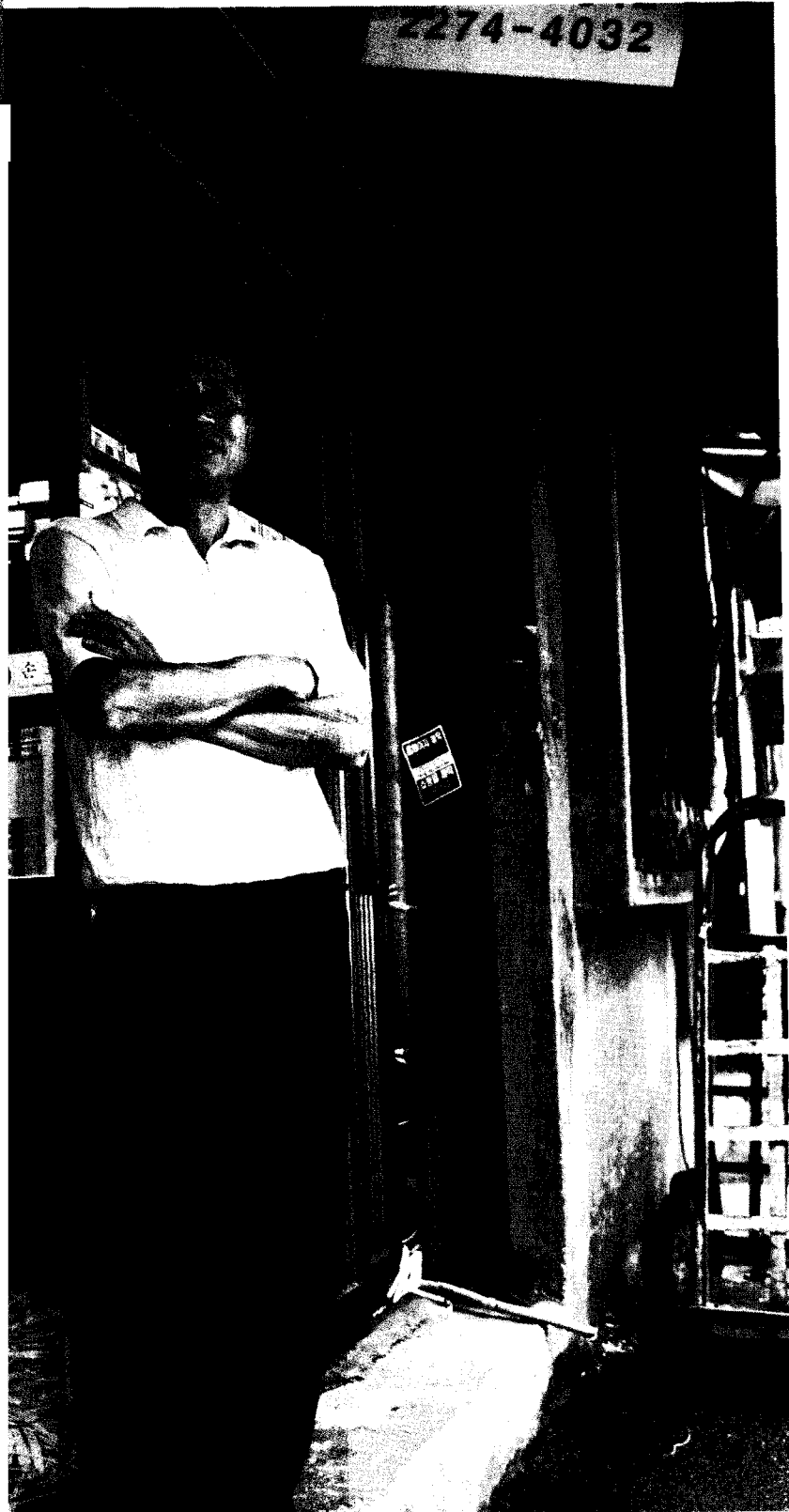
인쇄업계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인쇄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인쇄업계에 투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업체들은 덤핑을 조장하는데, 가격경쟁은 바로 인쇄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결국 인쇄인들의 자부심과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쇄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업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책을 누군가가 읽는다는 게 좋습니다

대영제본
김용철 대표





착착, 착착, 착착, 기계소리가 심장을 울린다. 경쾌한 소리 따라 종이들이 한 장 한 장씩 모이고 제본이 된다. 경쾌한 기계음이 울리는 여기는 책 제작의 마지막 단계인 제책사이다. 제책실에서는 2대의 제책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3명의 직원들이 기계에 붙어 일을 하고 있다.

제책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매형 밑에서 인쇄일을 배웠습니다. 매형이 인쇄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시골에서 갓 상경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서 어렵다고 생각해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창기에는 모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배운다는 자세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쇄제책분야로 관심이 넓어졌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책업을 하시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책은 보통의 일반 낱장의 인쇄물과는 다른 부피감과 표면의 질감과 시각적인 꾸밈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총체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선 디자인과 양질의 인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책에서 소홀히 하여 낱장씩 뜯겨 나간다가나 표지가 거꾸로 붙어있는 책은 아무런 감동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작업과정에서 위치를 조금이라도 벗어나 재단되었다거나 쪽수가 다르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업과정이 될 수도 있는 이 제책 과정에서 긴장을 놓칠 수 없으며 처음 작업하시는 분은 편안하게 보낼 수만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작업들 중 제책과정에서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책사에서 걸려오는 전화소리는 정말 두렵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기계를 다룰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기계로 일을 하더라도 숙련도에 따라 품질에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인쇄업계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책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항상 우리나라의 문화 창달 중심에 서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금과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인쇄, 출판, 제책 관련업체들의 단합과 협업을 통해 보완점을 절충해서 함께 발전해 가는 것이 절실하지만 덩핑으로 인한 단가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책업은 학계에 관련 학과도 없을뿐더러 관련 단체의 지원도 미약해서 갈수록 작업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제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공동 발전을 위해 업체들 간의 상호 신뢰 회복과 관련 단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랍니다.

● ● ●
세종UV인쇄

김윤학 대표



**인쇄물 고품질 실현에
보람을 느낍니다**



UV인쇄에 매료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먼저, UV인쇄에 사용되는 잉크들은 경화되거나 장기 보존처리를 위해 인쇄물 표면이 UV방사선에 노출되는 결과를 통해 시각적으로는 고광택을 발휘하며 이외에도 은은한 코팅, 빛나는 색깔, 살아있는 표현의 섬세함, 심지어 현재 인기가 오르고 있는 비코팅 매엽 인쇄물까지 잘 표현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잉크가 즉시 경화된다는 사실이 더해진다.

인쇄를 언제 시작하셨는지요.

1971년도에 인쇄일을 처음 시작했고, 1989년도부터 인쇄사를 직접 경영하며 1995년도에는 UV인쇄로 전환했습니다. 오프셋인쇄기를 직접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UV시스템은 공정의 효율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건조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적은 에너지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UV인쇄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UV인쇄에 있어 특히 UV환경이 중요합니다. UV인쇄는 UV잉크와 UV장치의 접목 외에 UV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필수입니다. 또한 영업맨에서 생산 공정에 참여하는 오퍼레이터와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UV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인드가 무시되거나 생략된다면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UV환경에서는 반드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다품종 소량생산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인쇄 작업을 한 곳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외주작업에 의존한다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와 같은 인하우스 개념의 인쇄는 점차 중요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세종UV의 작업방침은 빠른 작업보다는 깔끔하고 정확한 마무리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켜왔던 신념으로 여태껏 지탱해 온 품질 경영 방침이기도 합니다.

인쇄업계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인쇄업계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선의의 경쟁은 하되 그 경쟁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업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